아이낳고 키우기 함께합시다

임실군, 저출산 극복 · 출산 양육 모자보건 지원사업 활발

임실군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맞춤형 보건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저출산 시대에 맞춰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에 걸쳐 다양한 맞춤형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전개 중이다.

주요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이송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청소년산모 지원,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이다.

임실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임산부 등록과 동시에 엽산제 철분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출산장려 목적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전 부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첫째아 100만원부터 넷째아 이상 8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는 최대 4회까지 회당 5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한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 동기 부여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임산부에게는 산전 진찰 및 분만에 따른 임산부 이송지원비 26만원과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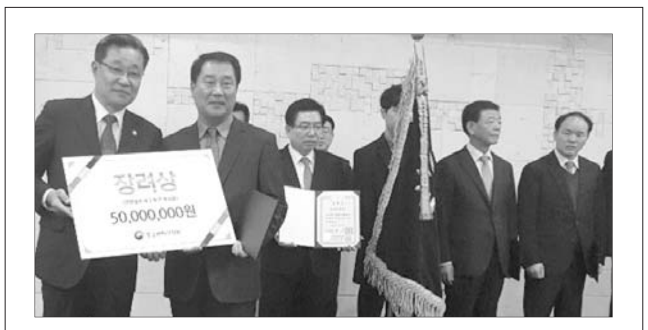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임실군 거주 출산가정 산모에게 19년부터 군비로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심 민 군수는 "고령화 저출산은 농촌지역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실군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 방문보건팀(640-3152~3154)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장류산업특구가 우수특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우수특구 장관상 수상

순창군, 전국 196개 특구중

순창군 장류산업특구가 전국 196개 특구 중 우수특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8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특구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더불어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노홍래 순창부군수가 수상했다. 이번 우수특구 평가는 전국 196개 특구운영에 대한 성과를 현장평가, 전문가 평가, 특구위원회 중앙평가 등 3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노홍래 부군수는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발효미생물산업, 소스산업으로 시장을 확대해 순창의 미래먹거리 산업 창출과 중장기 신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특구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2015년에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에 선정돼 장류특구 인근에 참살이 발효마을을 조성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형 육가공 공장 산단 유치 문제 있다"

양해석 남원시의원, 시정질문서 "남원, AI 취약지 전락 가능성" 우려

이환주 시장 "참프레 측에 전달 회사로부터 유치 의사 철회 보고받아"

남원시의회 227회 2차 정례회에서 양해석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 사매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문제, 인구 늘리기 정책, 남원시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남원시가 사매면에 시비 640억원과 국비 278억원 등 총 9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매일반산업단지에 부안군의 육가공 회사인 참프레와의 투자유치 협의를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참프레는 2010년부터 도축을 포함한 육가공식품 제조 업체로서 고용인원 910명으로 지난해 4,077억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지만, 사매면 주민들은 이들 육가공 공장의 악취문제와 육계차량 이동간에 발생되는 분진 등을 이유 및 그동안 남원시와 인근 몇몇 지역은 AI(조류인플루엔자)의 안전지대 및 청정지역이었는데 대규모 육가공 공장으로 인해 남원지역도 AI 취약지역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유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은 산업단지에서의 하수처리 및 각종 환경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참프레 측에 전달해 회사로부터 남원산업단지 유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양해석 의원은 이환주 시장의 인구늘리기 정책공약인 2030년까지 정주인구 10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를 실행하는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 시장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노인행복을 위한 지원, 교육특구육성을 통한 인구 유치, 다산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들었다.

남원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인사로 인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며, 남원시도 인사 관련 사전 승인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사위원회는 행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철저한 검증과 요건에 맞는 인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곳에서의 추천 등으로 조직되어 있어 그 어떤 비리도 일어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 안전한 주차문화 위해 주차장 증설

사업비 38억원 투입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남원시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운전자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는 주생면 상동리 옛 비행장 일원에 219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준공해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유도했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도심 갓길 밤샘주차가 크게 줄면서 시민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비 38억원(국비 13억5,000만원, 시비 24억1,000만원)을 들여 주차난이 심한 도심지 5곳에 추진, 지난 6월 쌍교동 156-2번지 일대에 2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한데 이어, 동충동 일대에 주차장을 조성해 운전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무식재 등 정비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친환경 주차장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 류장기 교통과장은 "시 계획대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은 물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불편 및 주차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순창군이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평가단 위촉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10명의 위촉식과 함께 6개 분야 45개 공약사업에 대해 평가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민선7기 공약사업은 '예산 5,000억원', '관광객 500만명', '인구 4만명 달성' 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했다. 분야별로는 ▲농민이 행복한 순창 ▲관광이 돈되는 순창 ▲문화가 숨쉬는 순창 ▲교육 1번지 순창 ▲복지가 먼저인 순창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군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해 가장 살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며 "공약사업 추진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해 군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도 공약사업이행 우수지자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남원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적극 나서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시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서비스 연계, 민관협력 활성화 등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남원시와 남원사회복지관은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며, 500만원의 지원금과 민간. 단체. 기업, 가족 등의 도움을 얻어 주거신축사업을 전격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원사회복지관,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등 가족들도 일부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는 위 사람은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어 인근 아파트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많이 불편했는데 유난히 추운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친환경 중앙분리대 조성

남원시는 도로 중앙에 기존에 획일화된 차선규제봉,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대신 친환경적 화단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구간은 누른대삼거리~고죽교차로(149m), 조산동 MG새마을금고장례식장~새집추어탕 구간(401m)으로, 총 연장 550m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12월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구간은 보행자 무단횡단, 불법유턴, 역주행 등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여 꾸준히 생활민원이 야기됐던 곳으로 이번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로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및 도시 정원효과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차선규제봉, 간이중앙분리대 등 임시적인 도로시설물 설치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유지 관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영구적이고 친환경적인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 인근 주민 및 운전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된다.

진영신 남원시 건설과장은 "남원의 관문인 주요 도로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19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환 도시미관 개선에도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